

이승은 | 연구원 (제 7068)

■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추진 및 에너지 지배력 강화 가속

- 미국 1월 소매판매는 감소, 산업생산은 증가
- 달러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낮아져도 금리 인하 보장 못한다고 발언
- 유럽위원회, EU 방위비 지출을 늘리도록 재정 규칙을 조정할 계획

■ 국제금융시장: 관세 정책 지연, 예상밖 소매판매 저조 등이 반영

주가 하락[-0.01%], 달러화 하락[-0.48%],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관세 및 경기 관련 불확실성으로 혼조세 보이다 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관세 우려, 미국 소매판매 감소에 따라 동반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관세 지연으로 관련 우려 완화 속 소매판매가 부진하며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6% 상승, 엔화 가치는 0.3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소비자표 약화에 따른 우려, 관세 지연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이 연기되며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39.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1.5원, 0.03% 상승). 한국 CDS 하락

		2/14일	2/13일	전일대비			2/14일	2/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114.6	6,115.1	-0.01%	국채 금리 10y	미국	4.48%	4.53%	-5bp
	유럽	552.41	553.75	-0.24%		독일	2.43%	2.42%	+1bp
	중국	3,346.7	3,332.5	+0.43%		영국	4.5%	4.49%	+1bp
	일본	39,149	39,461	-0.79%	CDS 5y	한국	30bp	31bp	-1bp
	한국	2,591.1	2,583.2	+0.31%		중국	44bp	46bp	-2bp
환율	달러지수	106.8	107.3	-0.48%	위험 지표	EMBI+	-	359	-
	유로화	1.0492	1.0465	+0.26%		VIX	14.77	15.1	-2.19%
	엔화	152.31	152.8	+0.32%		WTI유	70.74	71.29	-0.77%
	위안화	7.2572	7.2879	+0.42%	원자재	구리	466.45	477.8	-2.38%
	원화	1,441.9	1,446.6	+0.32%		금	2,882.5	2,928.2	-1.5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4월 추진 및 에너지 지배력 강화 가속

-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계획에 더해 자동차에 대해서도 4월 2일경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 세금의 범위, 세율 등 세부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일본·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표적에 오를 가능성
-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 Global Data에 따르면, 폭스바겐 AG의 미국 판매량 중 80%가 미국 내 생산이 아닌 수입 차량이며, 현대기아의 미국 판매량 중 65%가 수입 차량일 만큼 국내 수입차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관세 부과가 발표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주의 Commonwealth LNG에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액화천연가스 수출 허가를 부여.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작년 초 LNG 수출을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승인
- 이에 더해 “국가 에너지 지배 위원회” 설립 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해당 위원회는 대통령실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
- 해당 결정은 국내 에너지 생산을 우선시하고 미국의 풍부한 석유 및 가스를 지정학적·경제적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월 소매판매는 감소, 산업생산은 증가

- 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9%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 부문이 하락을 주도. 강추위와 캘리포니아 산불 등 계절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으나, 고물가, 차입비용 부담 및 부채 의존 등 소비자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도 반영된 결과
일부 하락은 관세 부과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을 미리 예상한 소비자들이 지난 4개월간 선제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분석
- 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상승하며 예상치(+0.3%)를 상회. 전월(+1%)에 비해서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미국 산업부문의 견고한 회복력을 반영.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0.1% 하락했고, 유틸리티 생산은 난방 수요 급증으로 매우 큰 폭 증가(+7.2%)하며 산업생산을 견인

■ 달러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낮아져도 금리 인하 보장 못한다고 발언

- 로리 로건 달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신중한 태도를 촉구. 현재 통화정책의 제한적 수준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금리가 중립에 가깝다면 꼭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

■ 유럽위원회, EU 방위비 지출을 늘리도록 재정 규칙을 조정할 계획

- 유럽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국방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면제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라고 요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유럽의 안보 지출을 매년 수천억 유로 늘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편할 예정

■ 밴스 부통령, 푸틴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미군 파견 옵션도 검토 중

- 밴스 미국 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제재와 군사적 행동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발언으로 평가

■ 중국 왕이 외교부장,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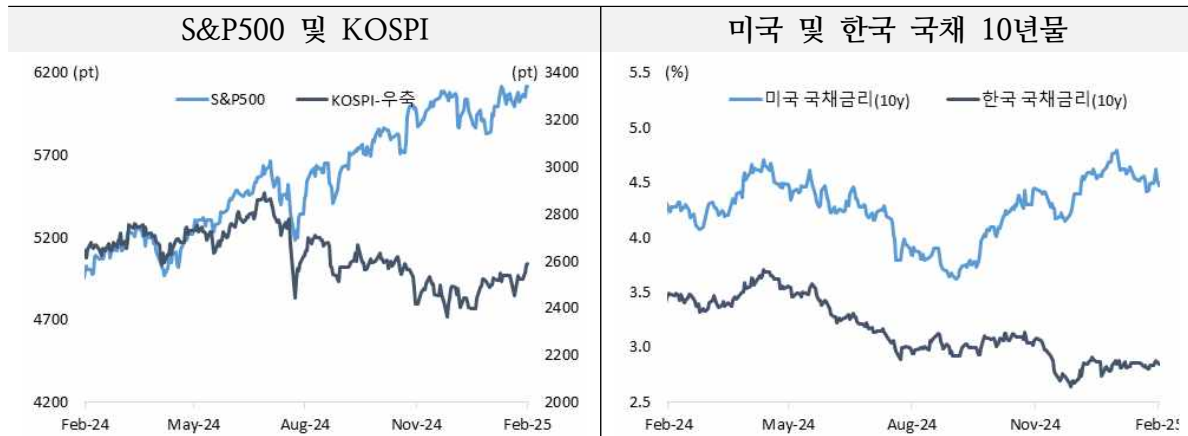
- 왕이 외교부장은 뮌헨 안보 회의에서 미국이 새로운 무역 갈등을 일으킨 것을 일종의 “괴롭힘”으로 규정하며 중국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며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첨언
- 러시아 가스 구매를 중단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크렘린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가스는 중국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거의 유일한 대규모 공급원이라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

주요 경제 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현지시각 기준)

- RBA 통화정책회의(2.17일), FOMC 의사록(2.19일), 미국 PMI 지수(2.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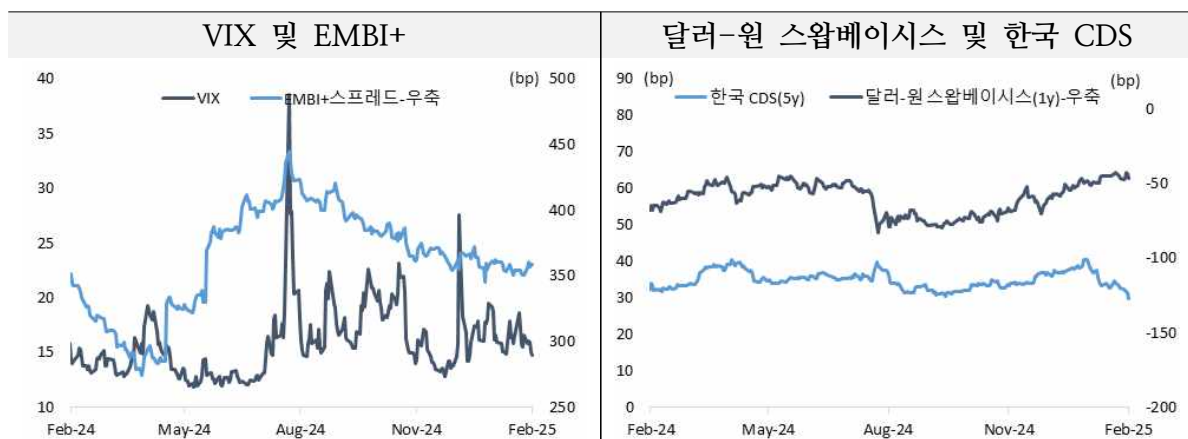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7, E-mail selee@kcif.or.kr